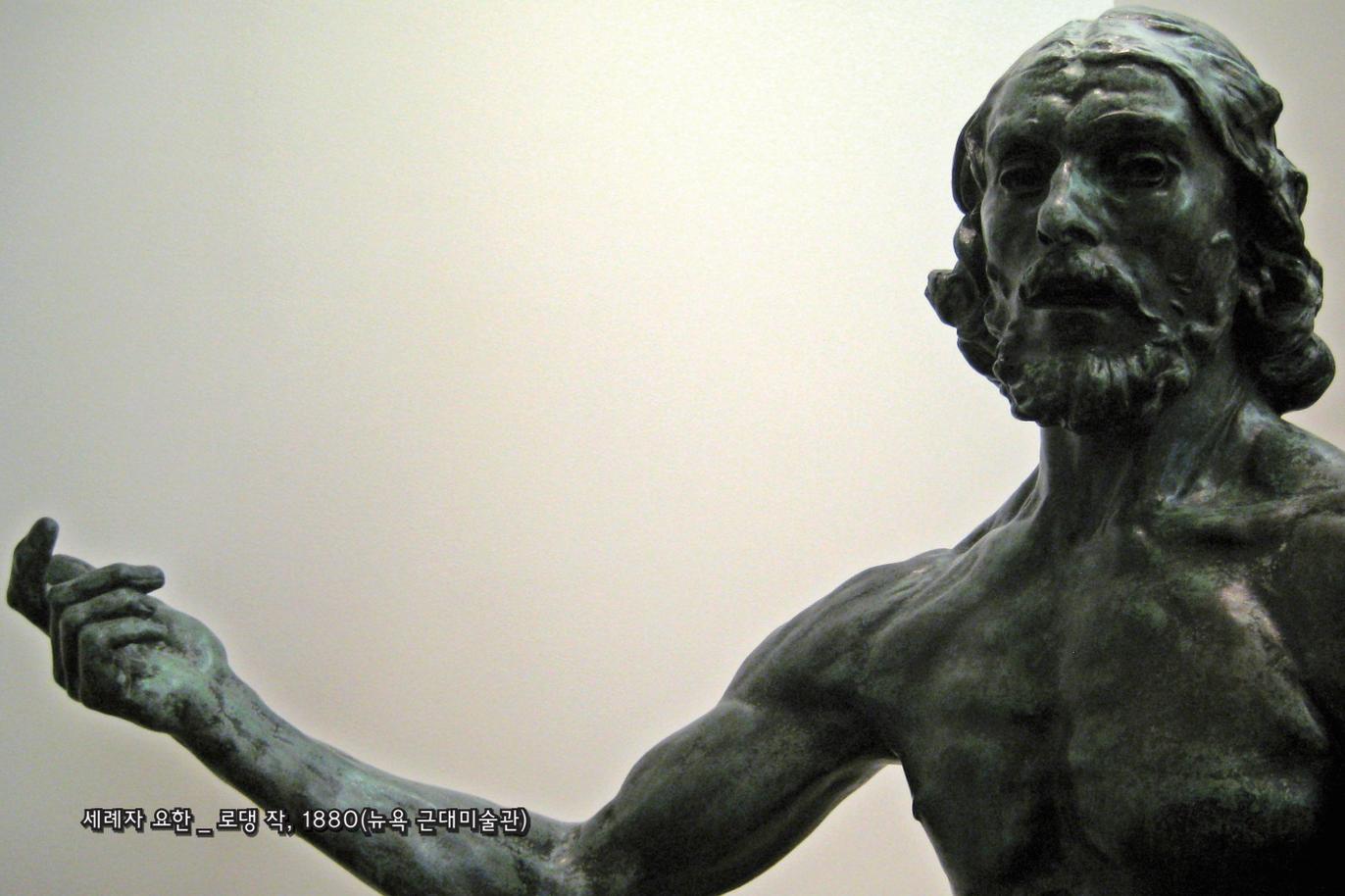


새로운 복음화를 위해 매진합니다

편집 및 발행 | 천주교대구대교구 문화홍보실 대구광역시 중구 남산3동 225-1 (053)250-3048~9 <http://www.daegu.jubo.or.kr>



세례자 요한_로댕 작, 1880(뉴욕 근대미술관)

† 오늘의 전례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마태 3,1-12 참조)

오늘은 대림 제2주일이자 인권주일입니다. 주님의 성탄을 기다리면서, 회개하라는 세례자의 외침을 들으면서 인권에 대해 돌아켜보는 이유는,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서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가장 못된 불효는 형제간에 시기하고 불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은 아무도 예외 없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자녀이고 형제입니다. 이것이 천주교회에서 말하는 인권입니다.

제1독서 이사 11,1-10

제2독서 로마 15,4-9

복음 마태 3,1-12

입당송 보라, 시온 백성아. 주님이 민족들을 구원하러 오신다. 주님의 우렁찬 목소리를 듣고, 너희 마음은 기쁨에 넘치리라.

화답송 © 주님, 이 시대에 정의와 평화가 꽃피게 하소서.

영성체송 예루살렘아, 일어나 높은 곳에 서서, 하느님에게서 너에게 오는 기쁨을 바라보아라.



회개의 생활을 통해 성탄 준비를!



이응욱 요한 신부 | 대구가톨릭대학교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 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마태 3,7-8) 우리는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회개의 삶을 살아 구세주로 오실 주 하느님을 맞이하기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외침을 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과 31절을 보면 우리는 모두 주 하느님의 모습을 닮은 사람들이며, 창조주 하느님께서 주 하느님을 닮은 우리들과 세상을 창조하시는 좋아하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담과 하와의 주 하느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교만(창세기 3장)과 하느님의 사랑에 자기성찰, 자기반성 없이 질투심으로 동생 아벨을 죽인 살인의 죄를 저지른 카인의 모습(창세기 4장)을 통해서 죄악, 범죄가 우리들안에 세상에 왔음을 고백하면서 주 하느님의 자비하심이, 구원의 은총이 절대로 필요함을 고백하고 간청합니다.

우리들 세상이 주 하느님의 자비하심과 구원의 은총을 입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교만이 아닌 겸손함이, 질투심이 아닌 자기성찰, 반성의 생활이 필요하며 나아가 죄악과 고통을 통한 죽음이 아닌 생명이 필요하고, 절망과 실망이 아닌 희망의 생활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구체적으로 회개의 생활을 통해서 창조주 하느님께서 좋아하실 수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회개의 생활은 다름 아닌 진·선·미의 하느님을 닮아가는 생활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을 닮은 진실함이 있는지 선함이 있는지 아름다움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물어 보아야 합니다. 우리들의 생활 속에 진실함이 있을 때 서로에게 대한 믿음이 선함과 아름다

움 속에서 서로에 대한 평화로움을 좋아함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 구세주는 우리와 세상과 함께 하셔서 우리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다가오실 구세주 주님을 어떻게 맞을 수 있을지를 이웃과 세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지 찾아야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서로 함께 함에 인색하고 차별과 무시가 판을 칩니다. 빈부격차 속에서, 학력 차이 속에서, 끼리끼리 생활 속에서 함께함을 거부하고 이기적인 생각과 생활이 판을 칩니다. 한국교회에서는 대림 2주일인 오늘 32번째 인권주일을 지냅니다. 인권주일이 제정되던 1982년 5공화국 시절은 인권이 철저히 무시당하는 엄혹한 시절이었습니다. 교회는 침묵할 수 없었고 주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소중함을 가르치고 인간 존중의 삶을 촉구하였던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하루에 3,000여 명의 무고한 태아가 낙태를 통해서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3,000여 명의 태아 낙태는 태아의 부모, 의사, 간호사 등을 포함하여 하루에 12,000여 명의 살인 공범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인권존중의 생활은 생명존중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생명 존중, 인권 존중은 다름 아닌 서로 함께하는 생활이고 서로 사랑함이고 잃어버린 주 하느님을 닮은 인간의 모습을 되찾는 모습이고 다가오는 성탄을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회개의 삶의 모습일 것입니다. 다가올 성탄을 서로 함께하는 가운데, 합당한 열매인 회개의 삶을 사는 가운데 준비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필문**

제32회 인권 주일 · 제3회 사회교리주간 한국천주교주교회의 담화문 (요약)

“하느님의 거처는 사람들 가운데에 있다.” (묵시 21, 3)

역사의 구체적 여정에서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는 것은
교회의 구원사적 소명이며 사회교리의 핵심입니다.

교회의 전례는 주님의 성탄을 준비하는 대림시기를 보내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요한 1,14) 강생의 신비를 묵상합니다. 특별히 한국 천주교회는 대림 2주를 인권주일과 사회교리 주간으로 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신앙인의 지상 소명에 대해 묵상하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실로 인간의 존엄과 소명은 주님 강생의 신비와 맞닿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역사의 상황에서 인간의 존엄을 천명하는 것은 교회가 걸어야 할 길(『백주년』 53항)이고 가톨릭 사상의 핵심이며 사회적 가르침의 근본 원리(『어머니요 스승』 219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침해하는 모든 시도에 맞서왔고 그러한 상황을 고발해왔습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하느님의 창조계획에 어긋나는 오늘의 상황을 진지하게 성찰해야 합니다. 우선,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은 시민의 자유와 이를 위한 국가권력의 한계와 제한을 줄곧 강조해왔습니다. 특히 정보기관과 경찰, 군대 등 국가의 권력기구는 반드시 시민적 통제 아래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한계를 넘어선다면 권력은 그 자체로 불법이며 시민의 인권과 자유에 대한 침해일 따름입니다. 둘째로, 사회 경제적 영역에서도 인간의 권리에 대해서 성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심한 소득 불평등과

빈부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공정한 경쟁의 부재와 부의 독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양극화와 광범위한 빈곤의 문제는 우리 사회의 재화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의롭고 인도적인 분배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차별에 대해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다른 믿음의 사람들과 외국인들, 그리고 여러 종류의 소수자에게 가해지는 우리 사회의 편견과 차별 역시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왜곡할 뿐 아니라, 조화롭고 평화로운 사회건설의 걸림돌입니다.

인간이 존엄한 것은, 성경이 강조하듯이 인간이 하느님의 모습대로 창조되었고 성자께서 인간으로서 인간 가운데에 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 가난한 이웃들과 기꺼이 동행하고 연대하며 더욱 더 인간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증진되는 사회로 나아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인간이 되신 하느님의 강생 신비의 참된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주님 성탄대축일을 맞이해야겠습니다.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2013년 12월 8일 인권주일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위원장 **이용훈** 주교



복음으로 세상 살기

마성우 세례자요한 신부 | 경산본당 보좌

주님께서 군중들한테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징조는 풀이할 줄 알면서 이 시대는 어찌하여 풀이할 줄 모르느냐?” 사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류는 자연을 풀이해서 만든 기술들로 먹고사는 많은 문제에서 해방되었고, 온 세상을 날아다니고 전 세계와 인터넷으로 연결된 편리한 세상에 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미래에는 눈에 보이지도 않는 나노 로봇을 사람 몸속에 넣어서 암도 치료하고, 스마트 폰 안경도 나와서 사람을 쳐다보면 페이스북 프로필이 뜨는 시대가 온다고 하니깐 앞으로도 참 기대가 되는 세상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자연을 풀이한 기술들로 우리의 온 공간을 물건들로 가득 채우고, 또 우리의 온 시간을 할 일들로 가득 채웠습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옛날보다 더 행복해졌을까요?

첨단 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우울증과 자살, 가정파탄 같은 현상은 자꾸 늘어가고 있고, 우리의 아이들은 언제부터인가 사람 쳐다보는 시간보다 자기 스마트폰을 쳐다보고 게임하는 시간이 더 많아지면서 기계에 중독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면서 확실히 가진 것은 많아졌지만 언제부터인가 사람보다 물건들한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물건 살 돈 번다고 바빠서 깊은 생각에 잠길 여유도 없는 시간의 가난뱅이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정신 없이 분주한 삶은 주님 말씀처럼 시대를 풀

이하는 눈을 잃어버리게 하고 당장 눈앞의 보이는 일들만 해결하면서 살기도 바쁘게 만듭니다. 우리시대는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것은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되는 상실의 시대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창조에서 종말로 가고 있는 이 시대를 꿰뚫어보면서 풀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풀이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과학이나 기술이나 돈이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지혜를 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께서는 이 시간의 끝이 무엇인지를 그리고 그 너머에는 무엇이 있는지를 생각하게 해 주십니다. 또 우리가 시간 속에서도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을 더 추구해야 할지를 가르쳐주셔서 올바른 일을 판단할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자연의 징조와 더불어 시대와 시간의 징표도 함께 읽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만연한 멸망의 징표도 읽으면서,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로 성취된 희망의 징표도 함께 읽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의 의미, 더 나아가 모든 인류 역사의 의미가 그리스도의 강생과 부활 사건에 집중되어 있고, 이를 통해 온 세상이 완성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풀이하고 살아내고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할 일임을 기억하며 기쁘게 살아갑시다. **빛과 소금**



우리의 따스한 체온으로

두 사람이 눈보라치는 벌판을 가고 있었습니다. 눈보라가 사정없이 치고 추위는 살을 에는데, 인적도 민가도 눈에 띄지 않는 넓은 벌판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얼마쯤 가다가 두 사람은 눈 위에 쓰러져서 신음하고 있는 노인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우리 이 사람을 같이 데려갑시다. 그냥 두면 죽고 말 거요.”

그러자 다른 사람이 화를 내고 말했습니다.

“무슨 애갑니까? 우리도 죽을지 살지 모르는 판국에 저 노인네까지 끌고 가다가는 다 죽게 될 거요.”

그러나 얘기를 꺼낸 사람은 불쌍한 노인을 그냥 둘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노인을 업고 눈보라 속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이미 앞서 가버리고 보이지 않았습니다. 노인을 업은 사람은 힘이 들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무거움을 꼭

참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몸에서는 땀이 비오듯이 흘렸습니다. 더운 기운이 끼쳐서인지 노인은 차츰 의식을 회복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체온으로 조금도 춥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들은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마을 입구에서 한 남자가 퐁퐁 언 채 쓰러져 죽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시체는 자기 혼자 살겠다고 앞서 가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삶의 길도 어찌 보면 눈보라 속을 헤쳐 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한다고 그저 내 앞만 내다보며 달려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혼자 앞서겠다고, 먼저 나간다고 해서 그것이 행복일 수는 없습니다. 힘겹더라도 주위를 둘러보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갑시다. 지금 당장은 힘들지 몰라도 결국에는 서로의 체온이 서로를 살게 할 것입니다. **골로**

금주의 성인

성녀 오티리아 (12월 13일)

아이를 보지 못하는 맹인인데다 딸로 태어나 아버지로부터 죽임을 당할 뻔 하셨던 오티리아 성녀께서는 어머니와 유모에 의해 수도원에 맡겨져 성장하셨다. 비록 시각장애인이기는 하였지만 누구보다 밝고 착하게 자라신 성녀께서는 에르하르도 성인에게 세례를 받을 당시 시력을 되찾는 기적을 체험하시고 고향으로 돌아가 수도원을 세우고 원장이 되셨다. 개혁적인 교육활동을 전개하셨던 성녀께서는 알자스의 수호성인이자 눈병으로 고통 받는 이들과 맹인들의 수호성인으로 공경 받고 있다.





부고



박형진(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선종

대구대교구 소속 박형진(아우구스티노, 향년 73세) 신부님께서 지난 11월 27일(수)에 선종하셨습니다. 11월 29일(금)에 장례미사를 거행하고 군위 묘원에 안장되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12월 13일 금요일은 (故) 정춘석 아우구스티노 신부님 선종 10주기입니다.

신앙다이어리로 새해 설게 끝!

전례와 말씀 안에서 매일을 주님께, 교구 2014년도

신앙다이어리 출시

판매가 : 10,000원 | 예금주 _ 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송금계좌 _ 대구은행 505-10-147612-5

구입처 : 문화홍보실 053)250-3046~9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안내

연중 제33주일(11월 17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30) 정답은 <겸손, 신뢰>입니다.

당첨자 : 이화정(레지나, 동천), 박정자(루시아, 성산), 김경자(수산나, 봉덕),

황미향(베아트릭스, 구룡포), 김금옥(베로니카, 봉곡)

그리스도 왕 대축일(11월 24일) '신앙의 해' 교리퀴즈(31) 정답은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당첨자 : 박정자(세실리아, 지묘), 이명자(엘리사벳, 옥수), 정미향(세실리아, 수성),

이효용(미카엘, 인동), 김혜영(아녜스, 임당동)

'신앙의 해' 기념 대구주보 교리퀴즈 최다 정답자 선정

일 년 동안 신앙의 해 교리퀴즈에 응모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가장 많은 정답을 보내주신 여섯 분께는 특별히 교구장님의 축복장이 수여될 예정입니다. (선정자 개별통지)

김선미(리따, 이곡), 양기홍(루도비코, 형곡), 강신국(가브리엘, 선산),

하희정(마리아, 본리), 허주희(마리아, 인동), 김귀숙(크리스티나, 만촌1동)

마음을 깨끗이

박성규 엘리지오



미사안내

3대리구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월성성당	2대리구 성소를 위한 기도모임	12월 9일(월) 11:30 범어성당
경주지역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성건성당	성요셉 아버지학교 월례미사	12월 9일(월) 20:00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구미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신평성당	구미지역 학교 복음화를 위한 미사	12월 11일(수) 19:00 신평성당
포항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12월 9일(월) 11:00 죽도성당	3대리구 교정사목후원회 월례미사	12월 14일(토) 10:00 월성성당

성소 | 피정

예수회 성소 모임

일시: 12.14(토) 16:00
장소: 한국 예수회 관구본부
주제: 걸어온 길, 걸어가야 할 길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성소 모임

기간: 12.14(토) 17:00~15(일) 13:00
장소: 성베네딕도왜관수도원 상원관
대상: 고등학생~만 31세 이하 미혼 남성
문의: (010)8353-2323 / (054)970-2000

천주성요한의료봉사수도회 성소 모임

일시: 12.21(토) 14:00
장소: 서울 가양동 수도원
대상: 보건의료 및 사회복지 사도직에 관심있는 청년
문의: (010)3800-1579

서울교구 삼성산 12월 2박 3일 무료 피정

기간: 12.13(금) 18:00~15(일) 15:00
장소: 삼성산 피정의집 대성전
회비: 무료, 문의: (010)4938-7076

새해 첫마음 피정

일시: 1.1(수) 13:30~19:00
2.2(일) 13:30~19:00
대상: 미혼 20~35세

문의: 예수성심시녀회,
(010)2649-2045

교육 | 모집

대가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모집: 12.27(금)까지, 개강: 12.30(월)
성가지휘 · 반주, 음악 1:1레슨
교양·문화강좌, 전문자격 과정 등
장소: 감삼동, 문의: 660-5556~7

오순절 평화의마을 철야기도회

시간: 매주 화 23:00~익일 4:00
버스운행: 현대미래몰 앞 20:30
수성구청 21:00
문의: 김마리아, (010)5529-3186

주교회의 명도회 장학생 모집

장학금 지원, 학술 연구비 지원
내용은 주교회의 홈페이지 참조
마감: 12.15(일)까지
문의: (02)460-7533

PBC 평화방송 겨울영어캠프

필리핀: 12.26(목)~1.23(목), 390만 원
미국(괌): 1.2(목)~1.29(수), 570만 원
대상: 초2~중3, 4주 코스
문의: 필리핀 (070)7119-6898,
미국(괌) (070)7504-4776

평창성필립보생태마을 아토피힐링캠프

기간: 1.6(월)~10(금), 4박 5일
1.13(월)~17(금), 4박 5일
1.20(월)~24(금), 4박 5일
대상: 아토피환자 1세~20세
환자 1인 40만 원 보호자추가 비용
문의: (033)333-8066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 모집

과정: 신구약성경 입문(2년)
방법: 우편과 이러닝학습(동영상강의)
원서: <http://uus.pauline.or.kr>
접수: 1.25(토)까지 / uus@pauline.or.kr
문의: (02)944-0819~24 / 0840~2

제4차 아일랜드 영어연수생 모집

초·중·고: 1.4~2.23(3, 5, 7주)
정규학교 아일랜드학생들과 수업
대·일반: 1.6~2.16(6, 10주 장기)
주관: 마신부님(Rev.Brendan MacHale)
문의: 그린피스이엔티, (02)3446-4253

제주도 관광 안내

가족, 효도, 단체 관광 및 성지안내
차량, 호텔, 펜션 예약 가능
주관: 제주교구 운전기사사도회
문의: (064)758-6476
(010)4566-6476

철국 박 이비인후과
중이염, 축농증, 비염
이명, 난청, 보청기 상담
편도염, 인후염, 역류성질환, 성대질환
어지럼증 클리닉(달팽이관)
이비인후과 전문의/원장 박 규 욱(바오로)
동천동 주민센터 옆 파리바게트 2층 ☎ 053)325-7577

www.gabimaru.co.kr
가비마루 커피
김재창(프란치스코) 이정숙(베네딕타)
특허진공티백 100%원두커피
본당 수익사업 상담환영
1588-3646 / 053)584-0404

유방 갑상선 전문 **여의사**가 진료하는
Maria Breast Clinic
마리아유외과
반월당내거리 농협 3층
T.053)252-6875

허리 아프고 무릎 아플 때
척추와 어깨·무릎을 치료하는
12명의 의료진
참조은병원
원장 배광주(레오) 원장 송대홍(요한)
T. 630-8000 지하철 1호선
승현역 2번 출구

16년 경력, 보증보험가입
"이현숙의 결혼이야기"
국내 2006.04 매일신문 인터뷰 (피플 "세상속으로")
국제 2009-2010 경북 공무원 교육원 다문화강사
054)458-3223 수산나 010-6571-3385
리스토리컬은정보
구미시외버스터미널 본관2층

예수님과 바오로사도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스라엘, 터키) - 14일
출발일: 2014년 1월 11일
순례경비 4,500,000원
T. 053)253-3399
www.sungjitour.com
☎ (주)영재여행 쏘렐레(유포티노)

ANGEL 포장이사는 **천사익스프레스**
전국대표전화 1644-2455
고객상담 080-118-1004
김태기(안토니오) 011-503-2404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주)분도 축복을전하는사람들
분도석유/주유소
난방유 대구전지역 배달
080-003-5189 (무료전화)
T. 656-2500, 425-7835
사회복지기업 대표 김현철(베네딕도)

행사 | 모임

12월 예비신학생 방학미사

일시: 12.15(일) 14:00

1~5대리구: 남산동 대신학원 성당
교구 모든 예비신학생을 위한 미사
(학부모님도 오실 수 있습니다.)

제10차 성경 통독 피정

기간: 12.21(토) 13:30~22(일) 16:00

장소: 베네딕도 영성관, 회비: 5만 원

문의: 사목국 성서사도직, 250-3082

<http://cafe.daum.net/biap>

대구)508-10-448845-1, 성서사도직

12월 가나 강좌

일시: 12.15(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 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교육 | 모임

가톨릭 부모 아카데미 수강생 모집

일시: 12.18(수) 13:30~16:3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화합실 / 5천 원

주제: 자녀와의 좋은 관계를 위한 대화법

강사: 이수남 요한(상담심리전문가)

문의: 교구 청소년국, 250-3065

행복한재활요양병원 입원환우 모집

치매·중풍 노인성질환으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을 가족과 같이
정성으로 보살펴 드립니다.

상담: 김요세피나, (010)3503-8427

2014년 주교좌계산성당 대림 특강

일시: 12.11(수) 저녁미사 후 대성전

주제: 주님, 감사드립니다.

강사: 두봉(레나도) 주교

지성인을 위한 토요 신앙 특강

일시: 12.14(토) 10:30~12:30

장소: 남산동 대신학원

주제: 신홍종교와 가톨릭신앙 / 5천 원

강사: 노길명(세례자요한) 교수

문의: 신학교육원, 660-5105~6

스페인어 초급반 모집

개강: 1.6(월)

오전반 10:00~12:00

저녁반 19:00~21:00

장소: 가톨릭근로자회관

문의: 253-1313

2014 맨발 가르멜 사색회 회원 모집

첫째 주 일요일, (011)530-7763

첫째 주 월요일, (011)9321-3497

넷째 주 일요일, (010)6263-0947

넷째 주 월요일, (010)4733-1715

가톨릭 한중(韓中)친선협회 회원 모집

대상: 중국어 초급이상, 50세 이하

내용: 중국어(성경반, 프리토킹반)

중국(문화친선반, 성지순례반 등)

회비: 한달 5천 원(모두 합한 금액)

문의: (011)808-8018

어르신 성경 전문봉사자 교육

기간: 1.2~2.13(매주 목) 6주, 13:00~17:00

장소: 바오로딸 2층(12만 원)

내용: 요한과 함께 쓰는 나의 복음서

접수: 425-5185 / (010)7449-1117

15회 대학생 필리핀 해외봉사어학연수

1차: 1.2(목), 2차: 2.27(목) (8, 12주)

기타: 캐나다, 호주 연계연수 가능

문의: 대구청소년수련원, 593-1273

22회 청소년 필리핀영어연수(4주)모집

가톨릭교리신학원(통신)신입생 모집

원서접수: 11.11(월)~14.2.7(금)

과목: 신·구약, 신학일반(전례학 등)

대상: 평신도, 수도자

문의: (02)745-8339

<http://ci.catholic.ac.kr>

채용 | 안내

삼덕유치원 교사 채용

서류 접수기간: 12.10(화)까지

인원: 정교사 2명

제출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성적증명서

면접 예정일: 개별 통보

문의: 782-9380 / (010)5296-9380

교구법원 공시(253-9550)

교구법원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정아름

스마트폰 전문점
두루텔레콤 SKT, KT, LGT
▷ 인기 기종 : 삼성 갤럭시(노트2, 갤럭시)
공동구매 최저가 판매
053-653-5011 내당역 3번 출구
011-444-1800 장현순(엘리사)

30년 전통
진실한 신자와의 만남의 장
성가정 결혼
(053)474-0025, 476-9275
가톨릭 문화관 2층
남대구우체국 옆 교대역 입구
권준문(파비올라)

부모님께 받은 사랑 이제 돌려드리겠습니다!
백내장수술은 사랑의 시작입니다.
의화박사
현.연세대의대교수 원장 박중원(소시모)
대구연세안과
☎ 053.626-8881~5

치질·내시경
아나
2500
병원장 의학박사
노성균 아우구스티노
신경준 대우파트 앞
늘시원안병원
www.hangmuns.com 959-7175

미소나리 출장뷔페
미소나리
에식뷔페, 기업체행사
각종 야외행사, 성당행사, 장례뷔페
Social Enterprise
사회적기업 (주)서구웰푸드
문의전화 053)555-4843
<http://www.미소나리.kr>

“하지정맥류만을 위한”
이연재 맥 의원
원장 : 이 연 재(에릭)
흉부외과 전문의, 의학박사
대한정맥학회 이사
652-9777 www.meckclinic.com
서부정류장에서 남대구 IC방향 200m

자격증 취득 전문 학원
북구음식나라조리학원
한식조리사기능사반 북어조리기능사반
양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재직자반
일식조리사기능사반 국비계좌제반
중식조리사기능사반 출장조리반
053)958-7500 / 010-3817-6895
대구시 북구 대현동 270-7 삼주빌딩 3층
대표 프란치스코(서정발), 아베스(김복순)

음주운전증
운전면허 취소 행정심판전문
합동 행정 사무소
대표 박 수 원(스티파노)
대구 MBC 너거리 문화웨딩 맞은편 3층
☎(053)753-4972 / 010-3651-4972